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1)

제석전이 야간(野干·승냥이)에게 법을 받다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천명하실 때, 천인과 인간뿐만 아니라 용과 귀신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었다. 해서 제세와 후세의 제자들에게 의해 보존된 불전 속에는 비유나 전생담 등 신비한 고사들이 함께 하는데, 감로와 같은 부처님 말씀에 가려 드러나지 않음이 있음이다.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과 부처 사이의 신이한 이야기들을 쫓아가 본다. 이야기의 구성은 <경률이상-동국역경원>에서 가져왔다.

<불설미증유경> 상권에서 전한다. 비마국 종타산에 야간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사자에게 쫓기다 우물에 빠졌는데, 사흘째 되는 날, 죽을 것을 깨닫고 계승을 남긴다.

“온갖 것이 모두 허망하니 /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못함이 오히려 한스럽구나 / 어찌하여 죄 없고 액난 있는 몸이 / 목숨을 탐내다가 공(功)도 없이

전세에 지은 모든 나쁜 일

현재 몫으로 다하게 하며

밝은 스승을 만나

수행 끝나면 부처 되길 발원

죽는가? // 공 없음도 한스럽거늘 / 도리어 인간의 물을 더럽히는구나 / 시방 부처님께 참회하니 / 원컨대 제 마음을 비추어 주십시오 // 전세에 지은 모든 나쁜 업(業)을 / 현재 받는 몫으로도 모두 다하게 하며 / 이로부터 밝은 스승을 만나 / 수행이 끝나면 부처되길 바랍니다”

제석이 이를 듣고 8만의 천인과 함께 우물에 빠진 야간을 찾아와 말했다. “성인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여 오랫동안 어두웠고 길잡이가 없었는데, 아까 비범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원컨대 저희들을 위해 가르침을 베풀어주시지요.” 천인들이 저마다 보배 옷을 벗어 법석을 마련하니 야간이 우물에서 나올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법석에 올라 설법했다. “두 가지의 큰 인연이 있습니다. 첫 째는 설법으로 천인을 깨우쳐 교화하면 복이 한량없음입니다. 둘째는 먹을 것을 보시한 은혜를 갚기 위해서니, 어찌 설법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제석이 말했다. “우물에 빠진 액난을 면하게 된 공을 값음도 마땅히 크다고 해야겠지만, 어떻게 설법하여 갚는 은혜가 이에 미치지 못하겠습니까?”

야간이 대답했다. “살고 죽음의 마땅함은 저마다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남을 모르느니라 부처님 법을 어겨 멀리하고, 밝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여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며, 오로지 옳은 것과 배푸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삶을 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다가 죽으면 지옥에

법으로 보시하면 공덕이 한량없다

떨어집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삼보를 받들어 섬기고 밝은 스승을 만나며, 악을 고치고 선을 닦으며 부모에게 효도 봉양하고 스승과 어른을 섬기며 권속끼리 화평하고 아랫사람들에게도 겸양하고 공경합니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내생에 천상에 태어납니다.”

다시 제석이 말했다. “높으신 이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그 몸과 목숨을 온전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공이 없는 이라 하였습니까. 음식보시와 법보시에 대해 들려주시지요.”

야간이 대답했다. “음식을 보시하면 하루의 생명을 건지고, 값진 보물을 보시하면 한 세대가 가난을 구제하지만, 생사만을 더하고 인연에 얽매게 됩니다. 설법으로 교화함을 법보시라 하는데 중생으로 하여금 세간의 도를 벗어나게 합니다. 첫째는 아라한이 되는 것이고, 둘째는 벽지불이 되는 것이며, 셋째는 부처님의 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3승(乘)의 사람이야말로 모두가 법을 들어서 말씀대로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중생이 3악도를 면하고 인간과 천상의 복락을 누릴

안 싸움을 했으나 이긴 나라가 없었습니다. 안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라바야국을 이길 수 있겠느냐?’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바라내의 파두마 국왕뿐입니다. 하천한 태생이나 열 가지 계율을 받들어 지니며 외욕을 범하지 않습니다. 비록 궁녀가 있으나 모두 나이가 들었으니, 뛰어난 여인을 가려 뽑아 그에게 바치고, 그로부터 병사를 빌려 싸운다면 마라바야국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고 했습니다. 궁녀를 받은 파두마 국왕은 군사 백만을 보내 그들을 도왔고 안타라국은 마라바야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파두마국의 왕은 본래의 뜻을 잊어버리고 호사하여 오락에만 집착하여 나라의 정사를 다스리지 않았는지라,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옥으로 갔는데, 여러 가지 모진 고통을 받았으나 스스로가 전생 일을 알고 마음으로 누워쳐서 다시 목숨을 버리고 아귀계에 났습니다. 다시 더 참회하여 열 가지 선행을 닦고 생각하여 다시 야간의 몸을 받았으나 다시 열 가지 선행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사자를 만나 이 우



삽화·강병호

도 다 법을 들어서이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법으로 보시하면 공덕이 한량없다’고 하셨습니다.”

제석이 말했다. “스승께서는 지금의 형상이 업보로 된 것입니까? 응화신(應化身)이십니까?”

“이는 죄의 업보이고 응화가 아닙니다.” 야간이 대답하자 제석이 다시 물었다.

그 인연을 들려주시지요.”

야간이 말했다. “옛날에 바라내 파두마성의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났으나 어릴 적부터 총명하여 특히 배우고 익히기를 좋아했습니다. 열두 살이 되자 밝은 스승을 따라 깊은 산에 살면서 고난을 달게 받으며 받들어 섬기고 매우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않았습다. 50년이 지나자 아흔여섯 가지 경서, 참기론, 의방, 주술 등에 통달하지 않은 데가 없었으므로 높은 재주와 지혜는 사방에 멀리 소문이 났습니다. 그 뒤 얼마 되지 않아 국왕이 죽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뒤에 안타라국과 마라바야국은 서로 여러 해 동

물 속에 빠져서 죽을 것을 깨닫고, 하늘에 나서 고통을 여고 즐거움을 받기를 바랐는데, 당신이 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서원을 잃었으니, ‘당신이 나의 생명을 구제하였지만 공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야간은 자신의 지금 형상이 죄의 업보임을 말한다. 이 때 제석은 8만의 천인들과 함께 열 가지 착한 법(十善法)을 받고서 먼저 열 가지 방편으로 모든 감각을 조복시키니, 여섯 가지 바라밀과 자(慈)·비(悲)·희(喜)·사(捨)이다. 이대 천인이 물었다. “이제 천궁으로 돌아가실 텐데, 화상께서는 언제 이러한 죄보를 버리고 천상에 태어나게 됩니까?”

야간이 말했다. “7일 뒤면 이 몸을 버리고 도솔천에 태어날 것입니다. 그대들도 그 하늘에 나기를 원해야 할 것이니, 많은 보살들이 계시면서 설법하며 교화하십시오.” 그는 7일 만에 생명이 다하여 도솔천에 갔는데, 다시 전생 일을 알고 10선도를 행하였다.

구성=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일기 ①

사람도 자연만큼 정직하게

사람도 자연만큼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으련만, 곁에 있으면서 친히 지내면서도 비밀이 많아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년 만에 한번 볼까말까 하는 사이라도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도 있다.

양파는 벗겨도 또 벗겨도 곁과 속이 다르지 않고 그대로 임을 보게된다.

그런가 하면 밤송이는 무서운 가시로 온 몸을 감고 있어 함부로 만질 수도 없고 그 속의 알밤에도 역시 딱딱한 껍질을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단단함 속에 또 한 번 뚫은 막으로 싸여있어서 그마저 벗겨 내고서야 밤의 진실을 알게 되고 달콤한 맛을 느끼게 된다.

양파처럼 곁과 속이 한결같아서 더 궁금해 할 것 없는 사람과는 아무런 허물이 없는 순수한 정을 나눌 수가 있다. 밤송이처럼 껍질은 까칠하지만 그 속마음을 알면 알수록 진실한 인격과 인품으로 향기로운 삶을 보게 될 때면 그를 스스로 섬기게 된다.

빛나무는 봄이 되면 언제나 그 투박한 나무 가지에 앙증스런 꽃망울을 힘겨 부치도록 터뜨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은 거짓이 없어 해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제각기 자신들의 조상을 이고 나 타난다.

내가 아닌 '우리'로 살아야

정직한 꽃의 종자처럼 살고파

우리 인간들도 다 부모님들의 모습과 성을 이어 받아 태어나면서부터 각기 다른 또 하나의 가문을 이루어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면 으레 그 부모에게로 흠이 돌아가고 부모는 그 욕까지 다 받아들이며 자식의 허물을 덮어 준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렇게 가히 없지만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마음은 어찌 부모를 따를 것인가. 자식은 부모의 조그마한 허물에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부모를 외면하고 원망함을 보게 된다.

그러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처럼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도 자기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또한 지극하다.

우리가 이웃과 함께 행복한 우정으로 살아가려면 첫째로부터 달라져야 할 것이다. 내가 아닌 우리로 사는 방법이라면 우선 나보다 이웃에 대한 배려와 이해로 허물없는 정 나눔일 것이다.

물질의 필요로움은 전생의 복으로 금생에 누리고 살지만 본시 내 것 없이 태어나 내 것을 만들어 가며 살고 있으니 지금 소유한 모든 것을 복되게 나누어 살 수 있음이 보살의 서원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남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 탐내어 탈도 아닌 논리로 우기며, 힘으로 빼앗으려 든다면 이것은 자연의 도리에 역행하는 죄를 짓는 행위 일 것이다.

오늘도 신문이나 방송은 좋은 소식보다 사회를 어지럽히는 유쾌하지 못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

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며 또 무엇을 자신들에게 가르쳐야 하는가?

우리 모두에게 공덕이 될 서로 아끼고 칭찬 할 일들로 가득 했으면 싶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되어야 하리라.

많이 가질 만한 사람이 가집은 지극히 당연하고 분수에 맞지 않은 것을 가지려함은 탐욕이 될 뿐이다.

따라서 사람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함은 지극히 당연함이나 할 수 없는 일임을 알면서도 아무 일이나 집착을 한다면 필요없는 간섭이며 욕심 일 것이다.

우리 모두가 꽃을 심어보자.

내년에도 다시 그 꽃을 만나보자.

자연은 정직하니까 심었던 그 종자의 꽃이 그대로 피게 되리라.

우리의 삶도 그러하며 내생의 행복한 과보를 얻기 위해 미움과 원망을 만들지 말고 맑고 향기로운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해야 할 것이다.

후회하지 않을 삶을 위해

- * 보고 싶은 사람 생각날 때면 미루지 말고 만나라.
- * 은혜는 꿈이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 * 주변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축원하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
- * 때때로 마음을 비워 흥분분하게 살아라
- * 미움은 빨리 비우고 고마움은 오래 가져라
- * 빛지지 말아라. 가능하면 빨리 갚으려고 노력하라.
- *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옷 없는 사람에게 옷을 주라.
- * 먼 곳의 벗에게 편지를 쓰라.
- *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고 아름다운 가슴을 만들어야 한다.
- * 하루에 3번 내 삶을 돌아보라
- * 생각해보고 말하는 습관을 가지자
- * 상처 되는 말을 삼가 하자

내가 부르는 축원의 노래

언제나 고마운 마음으로
당신을 생각함은
그건 곧 당신을 위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당신을 잊지 못함도
당신 모습이
이미 내 가슴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당신을
항상 품고 있다는 것은
지금도 당신 위한 기도 중이란 뜻입니다
앞으로 서나 배 속에
잠겨있는 당신이 있기에
거룩한 성령의 축원처럼 행
복하답니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큰 은혜
의 마음으로
내가 부를 축원의 노래입니다
부디 행복 하시라고.



이정옥(대원성·부산연꽃모임회장)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화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격하고 있다.

수강생모집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부정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h3>강의 일정표</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통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